

광주·전남 최악 '물폭탄' ... "물난리도 산사태도 인재"



'물바다' 된 구례읍내 8일 오후 구례군 구례읍 시가지가 폭우로 잠기자 구조대가 고무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침수' 가재도구 말리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담양읍 주민들이 9일 오후 침수가 된 집에서 가재도구를 꺼내 물로 씻어내 벽에 말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구례·곡성 주민들 "섬진강댐 홍수조절 실패로 물난리 ... 전남도 방치 토사터미 산사태 불리"
광주시민들 "상수도본부 상수도관 파손 누장 대처 ... 대촌·서창 수문이 열려 영산강 물 역류"

사상 초유의 호우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민들 사이에 행정당국의 단일한 재난행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3·6·7·8·11·15번〉
섬진강 역류로 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긴 구례군에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 조절 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산사태로 5명이 사망한 곡성에서선 전남도가 도로공사를 위해 마을 윗산에 방치한 거대한 토사터미가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4일 수도관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광주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호우로 상수도관이 파손돼 50여 가구가 단수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누장 대응하고 호우 피해 집계까지 누락하는가 하면, 일부 자치구는 시민들의 호우 피해 접수마저 거부해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재난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단시일 집중호우로 도시 전체가

침수피해를 입는 사례가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하수관로 정비, 펌프장 증·신설 등 기존 배수시스템 개선과 함께 저류기능 확보 등 도심 물 순환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조언 등을 내놓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께 발생한 서구 서창동 서창대교 인근 마을침수는 고장나 개방된 배수관으로 갑자기 불어난 영산강 물이 역류하면서 발생했다. 배수관로 관리를 맡고 있는 서구청은 "관문이 고장나 열려 있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 비슷한 침수 피해를 당한 남구 대촌동에선 한국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중인 수문이 아예 사라지는 바람에 범람하는 강물을 막지 못하고,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공사에서 2·3년전 수문 주변을 공사한 후 수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수문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다시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일한 누장 조치도 비난을 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

난 7일 오후 5시께 북구 망월동 주민들로 부터 폭우에 따른 단수피해를 접수받고도 2시간 가까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4시간이면 해결될 보수공사는 누장대처 탓에 다음날 오후 5시께야 마무리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호우 피해로 발생한 이날 단수사고를 은폐하려는 행태마저 보였다. "단수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시 호우피해 집계에도 누락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북구청은 일부 시민의 호우피해 접수를 받지 않아 원성을 샀다. 하수도관 역류로 상가침수 피해를 입은 안오씨는 "폭우에 따른 하수도 역류 피해가 명백한데도, 피해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황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에서도 어설픈 재난행정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6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비로 전체 1182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군에선 구례읍의 피해가 컸다. 구례읍은 섬진강 지류인 서서천을 따라 형성됐는데, 유량을 감당하지 못한 서서천 제방 일부가 무너지고 범람해 읍내로 물이 밀려들었다고 한다.

물난리 원인에 대해 기록적 폭우와 함께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 조절 실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섬진강 상류에 자리잡은 섬진강댐이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하루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수문 개방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되레 큰 폭우로 개방하면서 구례읍 물난리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 1일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초당 50~600t을 방류하다가, 2시간여 뒤인 오전 8시부터 초당 1000t으로 늘렸고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는 초당 1800t 이상의 물을 쏟아냈다. 구례읍 등 구례군 대부분 지역이 침수된 시간과도 겹친다.

영산강홍수통제소측은 "최대 200mm라는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수위를 조절해왔으나,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방류량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곡성군 성덕마을 '산사태'와 관련해서 전남도 책임론도 나온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500m 위쪽, 산 중턱 도로 부근에 쌓인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게 원인"이라며 "무너져 내린 토사는 전남도가 국도 15호선 직선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쌓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도 일부 인정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구례·곡성·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

폭우에 태풍까지 ... '장미' 오늘 상륙

광주·전남에 또 많은 비

제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에서 발생한 제 5호 태풍 장미와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11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태풍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점차 약화되면서 10일 밤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0~200mm,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아침 최저기온 25~26도, 낮 최고기온 28~30도 분포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우와 만조시기가 겹치면서 해안저지대와 농경지의 경우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세균 총리, 곡성·담양 폭우 복구 상황 점검 "광주·전남 지역 '특별 재난지역' 선포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곡성과 담양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윤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

해가 심각한 광주를 비롯한 나주·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기러기 가족' 많은 곳은? ▶14면

최진석 교수와 책 읽기 '돈키호테' ▶16면

KIA 김호령의 쇼타임 다시 시작됐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이 시장과 함께 영산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홍수 관리 상황을 둘러본 뒤 김 지사와 함께 곡성과 담양을 방문, 산사태 및 도로 유실 등 피해·복구 실태를 살펴봤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지역에 재난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곡성 오산, 담양 수북 등에서 수재민들을 만나 피해 당시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 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뜰

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과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검찰 요직 '빅 4' 자리 호남출신으로 채웠다

지난 7일 검찰인사에서 이성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등 검찰 요직 '빅 4' 자리가 모두 호남출신으로 채워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참모로 남원출신(전주고)인 조만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고검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김장우(27기) 대검 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관련기사 6면>

9일 법무부에 따르면 7일 이뤄진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사를 통해 검찰 내 '빅 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을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맡게 됐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자리를 맡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자리를 옮기는 심재철(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북 완주(전주 동암고) 출신,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서 승진한 이정현(27기) 중앙지검 1차장은 나주 출신(영산포상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신성식(27기) 중앙지검 3차장은 순천고를 나온 검찰 내 호남 인맥으로 꼽힌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